

제5절 나곡1리(羅谷一里)[속명 : 석호(石湖)]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돌섬인 해망산(海望山)이 있으며, 해안의 백로암(白鷺岩)에는 백로 떼가 날아들어 장관을 이룬다. 서쪽은 만호곡(萬戶谷)과 한수원 사택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서북쪽으로 나곡2리와 접한다. 북쪽은 울진의 명승지인 ‘남대문(南大門)’이 있으며, 나곡3리와 인접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500여 년 된 느티나무와 성황당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의 북쪽 해안가를 ‘골방진’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포구이다. 골방진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백사장을 ‘후리계’라 부르며, 60여 년 전까지 이곳에서 주로 멸치 후릿그물작업이 성행했다. 마을 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호마을에는 기잠, 바깥기잠, 성수내기, 간수내기, 골방암, 백로, 신동바위, 권질 등 8곳의 째[수중 미역바위]이 있으며, 마을의 어촌계가 이곳에서 돌미역을 채취한다.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이곳에는 횃집 등이 대거 조성되었다. 석호항은 최근 정부로부터 어촌뉴딜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부구1리와 나곡리 석호마을의 경계에 임란 의병장인 김언륜 장군과 흥부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독립운동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14> 나곡리 성호동 성황당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 마을의 역사

148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처음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당시 산 밑의 숲속에 큰 바위가 숨어 있다 하여 석은리(石隱里)라 하였다. 그 후 1930년경에 밀양 박씨(密陽朴氏)가 입향(入鄕)하여 마을을 보니, 마을이 해류(海流)에 의하여 침식(侵蝕)되고, 또는 퇴적물(堆積物)에 의하여 바위로 된 호수와 같다 하여 석호리(石湖里)라 이름 지었다고 전한다.

3. 가구 분포

총 196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최씨(慶州崔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남대문(南大門)

동해에 접하며, 폭이 약 1m, 길이 50m에 달하는 자연 암벽이다. 이 암벽은 칼로 잘라놓은 것 같으며,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상륙거점으로 이용하여 마을에 들어와 재물을 약탈했다는 향언이 전하며, 이곳에서 통로(通路)로 숨어 들어오는 왜적들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지금은 해조류(海鳥類)의 서식처가 되어 있고, 특히 주위의 해변이 깨끗하여 주민들의 소풍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난날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이 찾아와 시(詩)를 짓기도 하였다 한다. 창해(滄海) 최익한(崔益翰) 선생의 장편 한시(漢詩)가 전한다.

2) 백로암(白鷺岩)

산(山) 끝이 해안에 접하여 이어진 바위들을 백로암(白鷺岩)이라 부르고 있다.

3) 해망산(海望山)

석호리(石湖里)에서 300m 거리의 바닷속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해망산(海望山)이라 부른다.